



08-16 (통권 294호)

2008.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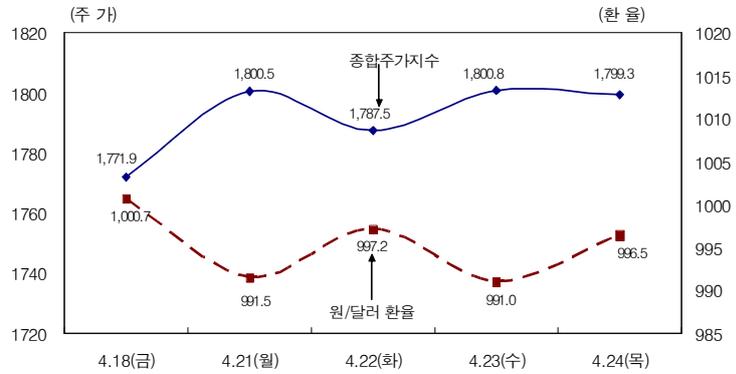
韓國經濟週評



■ 글로벌 리커플링(Recoupling) 가능성 진단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4.18~4.24)



차 례

| | |
|-------------------------------|----|
| 주요 경제 현안 | 1 |
| □ 글로벌 리커플링(Recoupling) 가능성 진단 | 1 |
| 주간 경제 동향 | 30 |
| □ 실물 부문 :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 30 |
| □ 금융 부문 : 국고채 금리 연중 최저치 복귀 | 31 |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3669-4121, swhan@hri.co.kr)
 □ 거시경제실 : 주 원 연구 위원 (3669-4030, juwon@hri.co.kr)

Executive Summary

□ 글로벌 리커플링(Recoupling) 가능성 진단

1. 개요

2007년 세계 경제는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신흥개도국의 성장률은 상승하는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을 나타내었다. 이에 대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가 하면, 탈동조화는 일시적 현상으로 다시 선진국-중후진국 간 동조성이 복원될 것이라는 **재동조화(recoupling)**의 주장도 상존하고 있다.

향후 세계 경제가 이 두 가지 중 어느 경로를 보이는가에 따라 한국 경제의 방향성이 결정된다. 한국 전체 수출에서 선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00년 51.8%에서 38.9%로 하락한 반면, 중후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같은 기간 48.2%에서 61.1%로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선진국들이 부진하더라도 중후진국들의 성장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디커플링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는 당분간 완만한 하강세를 보일 것이다. 반면 세계 경제가 선진국과 중후진국들이 동반 불황에 진입하는 리커플링 국면으로 전환된다면, 국내 수출 경기가 침체에 빠져 경제 전체적으로 안정 성장이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

2. 주요국 경제 현황

2007년 세계 경제는 선진국 경제들의 경기 하강 신호가 나타나고, 중후진국들이 고 성장을 지속하는 전형적인 디커플링 국면에 위치해 있다. IMF에 따르면 2007년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2006년의 3.0%에서 0.3%p가 하락한 2.7%를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신흥 개도국의 경우 7.8%에서 7.9%로 오히려 소폭 상승하였다.

선진국의 경우 국별로는 미국이 소비 부진 및 투자 침체로 4/분기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고 있다. 2007년 하반기 이후 시작된 금융 시장에서의 서브프라임 부실 문제가 실물 부문에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07년 3/분기에 전기대비 연율 4.9%에서 4/분기에 0.4%로 급락(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는 2.8%에서 2.5%로 하락)하였다. EU는 내수 및 수출 경기의 동반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2007년 3/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9%에서 4/분기에 2.5%로 하락하였다. 일본은 수출 경기 호황 지속과 민간투자 확대로 일시적 경기 호조를 시현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2007년 3/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7%에서 4/4분기에 2.0%로 상승해 있다.

신흥 개도국의 경우 중국 경제는 소비와 투자가 호조를 지속하였으나, 수출 경기가 다소 둔화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2007년 3/4 분기와 4/4 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1.5% 및 11.2%에서 2008년 1/4분기에는 10.6%로 하락하였다. ASEAN의 경제성장률은 2005년에 5.6%, 2006년에 6.0%에 이어, 2007년에도 성장세가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인도의 경우에도 건설업, 소비 관련 업종 등이 호조를 보여, 2007년 경제성장률은 2006년의 9.4%보다 높은 9.6%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3. 2008년 세계 경제의 리커플링 가능성 진단

2008년 세계 경제는 첫째 OECD 경기선행지수(Amplitude adjusted Leading Indicators) 상으로 '경기 하강'이라는 방향성은 선진국과 중후진국이 일치하나, 경기 하강의 강도는 상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선진국의 경우 일제히 이미 경기 고점을 지나 잠재성장률 수준(OECD 경기선행지수상 장기추세선인 100p)을 하회하는 경기둔화(Slowdown)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BRICs 국가들의 경기는 현재 고점 부근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경기 하강 초기인 경기후퇴(Downturn)국면으로 진입할 전망이다.(2008년 2월 현재 모두 장기추세선 100을 상회)

둘째, IMF의 최근 전망 자료(World Economic Outlook, 2008년 4월)에 따르면,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선·후진국 모두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경제성장률의 경우 2007년 7월 전망시 2.8%에서 2008년 4월에 1.3%로 약 1.5%p 하향 조정된 반면, 신흥시장 및 개도국의 경우 2007년 7월 전망시 7.6%에서 2008년 4월에 6.7%로 0.9%p 하향 조정되는 데 그쳤다. 더구나 고성장 국가인 신흥시장 및 개도국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고려할 때, 0.9%p 하향조정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두 기관의 시각을 고려해 볼 때, 2008년 세계 경제는 제한적 리커플링이 예상된다. 즉 경기의 방향성은 선진국과 중후진국의 추세가 동반 하강하는 하방 리커플링 국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기 부진의 정도는 선진국들은 심하고, 중후진국들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제한적 리커플링의 원인

이와 같은 제한적인 리커플링의 원인은 첫째, 중후진국의 세계 성장 기여도가 급증하고 있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2007년 시장 가격 기준으로 미국, 중국, EU, 일본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2%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 기여 측면에서 보면 구매력(PPP)기준 2007년 세계 경제성장률 4.86%중에서 선진국의 기여도는 1.53%p (세계 경제성장을 100으로 보았을 때 기여율 31.5%)에 불과하다. 반면 중후진국의 기여도는 3.33%p (기여율 68.5%)에 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성장 기여도는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해, 1.16%p의 기여도(23.9%의 기여율)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0.48%p, 유로 지역 0.43%p, 일본 0.14%p의 기여도를 합친 것보다도 높다.

둘째, 세계 수입 시장으로서 미국의 역할을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렵다. WTO(세계무역기구)의 자료를 근거로 할 때, 미국의 2006년 총수입액은 약 1조 9,000억 달러

로 세계 전체 상품 수입의 15.5%로 비중 1위국에 해당된다. 그러나 각국의 세계 수입 증가분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면, 2007년 세계 수입 증가분을 10%로 보았을 때 유로 지역이 가장 높은 18.8%의 기여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이 13.1%로 2위의 기여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기타 중후진국의 경우에도 40.7%나 기여하고 있다. 반면 세계 수입 비중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세계 수입 증가분에 대한 기여율은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이 향후 수년간 서브프라임 부실 문제로 소비 부문 침체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본다면, 미국의 세계 수입 시장에서의 역할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5. 정책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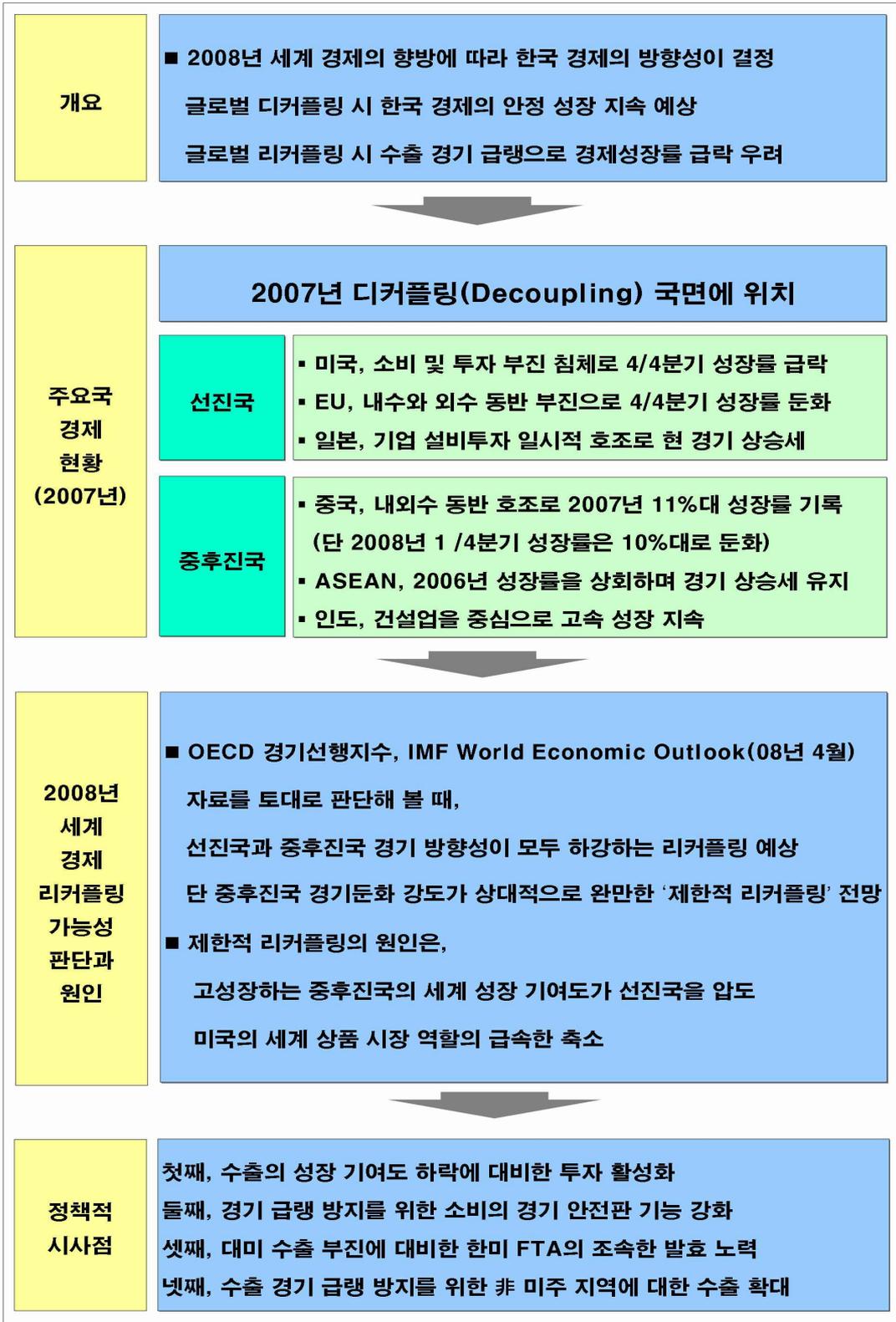
이러한 세계 경제의 제한적 리커플링 가능성에 대비하여, **첫째, 수출의 성장 기여도 하락에 대비한 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투자 관련 규제 개선과 법인세 등 기업 활동 관련 세법 정비 등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급감하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 관련 절차 간소화, 외국 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 서비스 확대, 외국인의 생활 인프라 개선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경기 급랭 방지를 위한 소비 부문의 경기 안전판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된 투자 활성화를 통한 고용 확대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경기 급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이나 감세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 억제, 수입 농산물 및 공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 등 물가 안정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시장 개입을 통한 가격 통제는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농산물 유통 체계의 개혁, 생산성 향상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대미 수출 부진에 대비하여,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모두 한미 FTA의 조속한 체결 의지를 피력한 것과 관련하여, 반드시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서 한미 FTA를 완결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자동차 시장 개방 등 한미 FTA 비준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요 부문별 현안에 대해서는 미 의회와 미국 내 이해단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설득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수출 경기 급랭 방지를 위한 非 미주 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가 요구된다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에 대한 FTA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CIS 산유국, 중동 등 최근 오일 달러로 구매력이 높아진 시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세일즈 외교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신흥 시장 개척을 위해, 해당국의 경제 상황, 투자 관련 규제 등과 같은 투자 환경 자료와, 소비자 선호도, 유통 물류망과 같은 시장 정보 제공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 글로벌 리커플링(Recoupling) 가능성 진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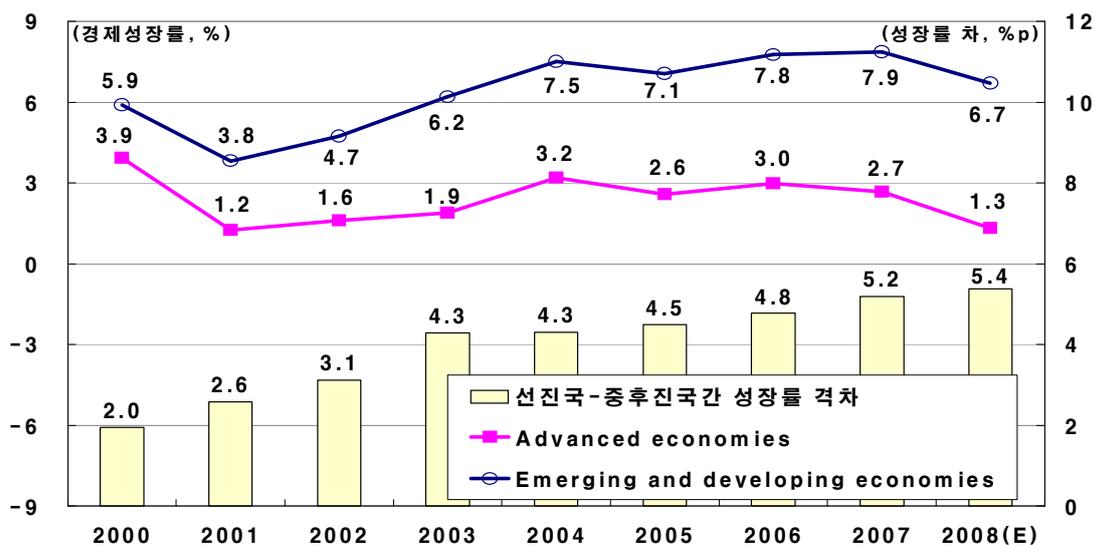


1. 개요

○ 세계 경제의 脫동조화(decoupling)와 再동조화(recoupling) 논란

- 최근 선진국-중후진국간 경기 탈동조화(decoupling)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과 일시적 현상으로 다시 동조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recoupling)이 공존함
- 현재 미국 경제는 2007년 하반기에 발생한 서브 프라임 부실 문제로 경기 침체 국면으로의 진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시각은 향후 세계 경제의 向方에도 상반되는 시사점을 가지게 됨
 - 만약 선진국과 중후진국 간 탈동조화(decoupling)의 가설이 옳다면, 비록 미국 경제가 불황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중후진국 경제들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 수요만을 가지고 현재의 고성장을 이어갈 것임
 - 그러나 재동조화(recoupling) 가설이 옳다면, 선진국에 대한 경제 의존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중후진국들의 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결국 세계 경제는 동반 불황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것임을 의미함

<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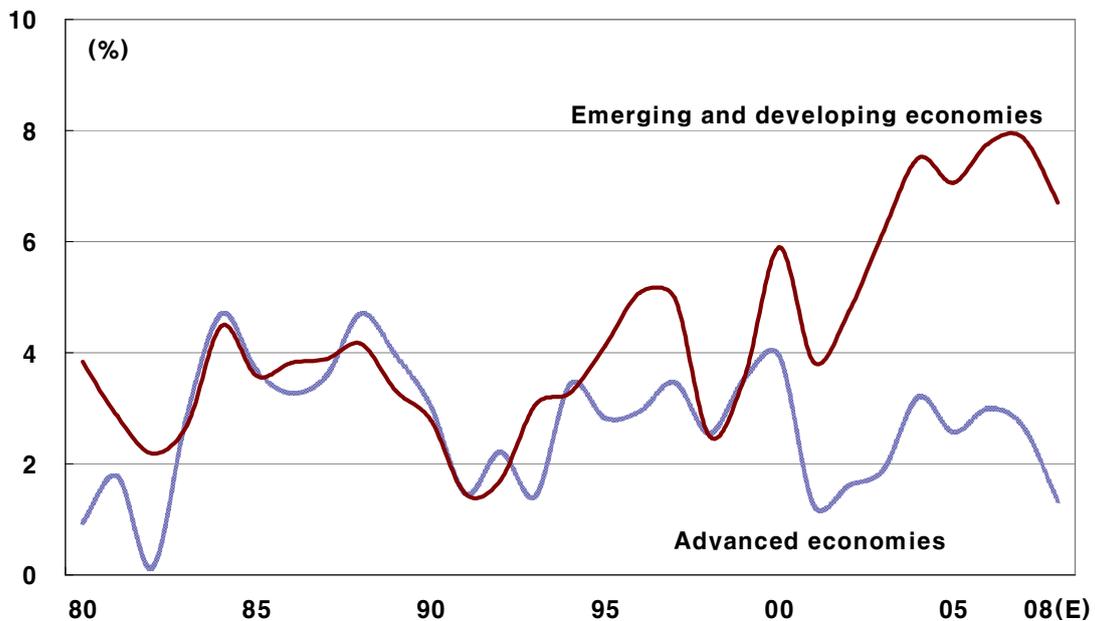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8년 4월).

주 : 2008년은 IMF 전망치.

< 참고 > 최근의 디커플링과 과거 디커플링의 사례

- 1980~2000년의 기간 동안 대체로 선진국—중후진국 경제성장률이 비슷한 수준과 추세를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남
- 다만 1980년대초 2차 오일쇼크 기간과 90년대 중후반의 경우 중후진국의 경제성장률이 선진국 성장률보다는 높은 수준을 기록
- 2000년 이후 두 그룹간의 성장률 사이클은 비슷한 궤적을 그리면서 동행하지만, 성장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
- 이는 2000년 이후 유가 상승으로 인한 산유국들의 고성장, 중국, 인도 등 GDP 규모가 큰 신흥공업국들의 부상으로 중후진국 전체의 성장 속도가 크게 빨라졌기 때문으로 판단됨

< 1980년 이후의 선진국과 중후진국간 경제성장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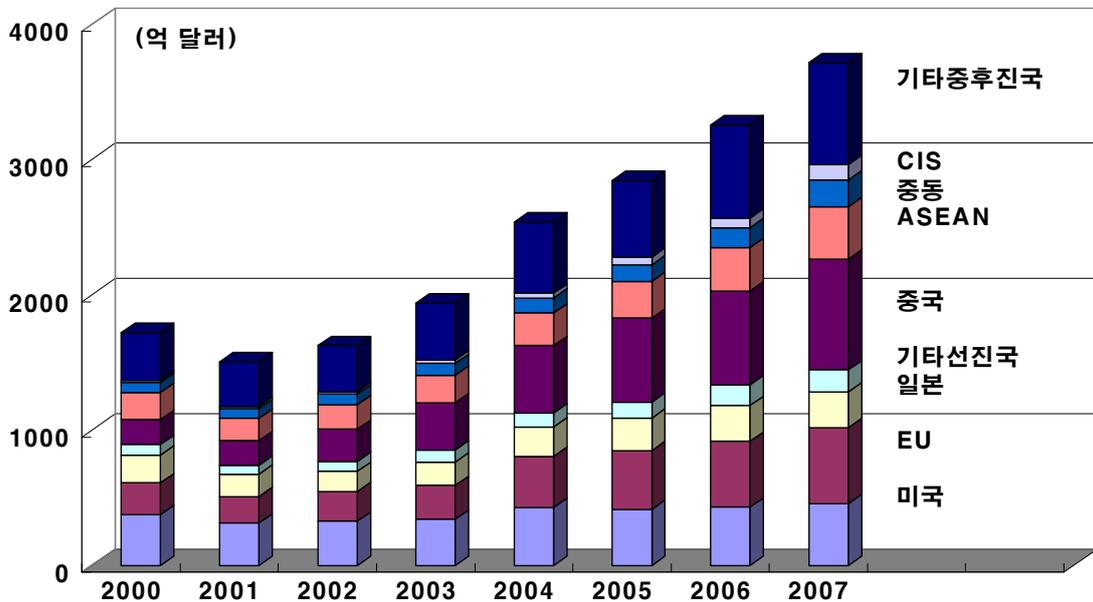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8년 4월).

주 : 2008년은 IMF 전망치.

○ 脫동조화(decoupling)와 再동조화(recoupling)에 대한 국내 수출경기 의존성

- 세계 경제의 디커플링 여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데, 이는 최근 들어 우리나라 수출의 주요 대상 지역이 선진국에서 중후진국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선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00년 51.8%에서 2007년에 38.9%로 하락한 반면, 중후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같은 기간 48.2%에서 61.1%로 급증
 - 이와 같이 중후진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부진하더라도 중후진국들의 성장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디커플링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는 완만한 하강세를 보일 것임
 - 반면 세계 경제가 선진국과 중후진국들이 동반 불황에 빠지는 리커플링 국면으로 전환된다면, 국내 수출 경기가 침체에 빠져 경제 전체적으로 안정 성장이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음¹⁾

< 한국의 주요 대상지역별 수출액 추이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기타선진국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임.

1) 한국의 2007년 수출의존도(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총수출 비중)가 약 39%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여전히 수출은 우리나라의 주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한국의 주요 대상지역별 수출비중 추이 >

(%)

|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선진국 | 51.8 | 49.2 | 47.3 | 44.0 | 44.4 | 42.5 | 41.0 | 38.9 |
| 미 국 | 21.8 | 20.7 | 20.2 | 17.7 | 16.9 | 14.5 | 13.3 | 12.3 |
| E U | 13.6 | 13.0 | 13.4 | 12.8 | 14.9 | 15.4 | 14.9 | 15.1 |
| 일 본 | 11.9 | 11.0 | 9.3 | 8.9 | 8.5 | 8.4 | 8.2 | 7.1 |
| 기타선진국 | 4.5 | 4.4 | 4.5 | 4.6 | 4.1 | 4.1 | 4.7 | 4.4 |
| 중후진국 | 48.2 | 50.8 | 52.7 | 56.0 | 55.6 | 57.5 | 59.0 | 61.1 |
| 중 국 | 10.7 | 12.1 | 14.6 | 18.1 | 19.6 | 21.8 | 21.3 | 22.1 |
| ASEAN | 11.7 | 10.9 | 11.3 | 10.4 | 9.5 | 9.6 | 9.9 | 10.4 |
| 중 동 | 4.4 | 4.7 | 4.6 | 4.4 | 4.3 | 4.3 | 4.4 | 5.3 |
| C I S | 0.8 | 1.1 | 1.0 | 1.3 | 1.4 | 1.9 | 2.2 | 3.0 |
| 기타중후진국 | 20.7 | 22.0 | 21.1 | 21.7 | 20.8 | 19.9 | 21.1 | 20.2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1) 기타선진국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임

2) EU에는 일부 중후진국가들도 포함되어 있으나 한국의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이 미약하여, 여기서는 분석의 편의상 이들 국가를 선진국으로 분류함.

2. 주요국 경제 현황

1) 선진국 그룹

○ (미국) 소비 부진 및 투자 침체로 경제성장률 급락

- 2007년 하반기 이후 시작된 금융 시장에서의 서브프라임 부실 문제가 실물 부문에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07년 3/4분기에 전기대비 연율 4.9%에서 4/4분기에 0.4%로 급락
- 미국의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소비지출은 2007년 3/4분기에 전기대비 연율 2.8%에서 4/4분기에 0.6%로 크게 낮아짐
-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7년 3/4분기에 6.2%에서 4/4분기에 3.3%로 낮아졌으며, 주택건설투자는 같은 기간 -20.5% 및 -25.2%의 감소세를 기록함

-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국민계정상 순수출 적자폭은 2007년 3/4분기에 5,331억 달러에서 4/4분기에 5,068억 달러로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냄

< 미국의 국민계정 주요 지표 증감률 추이 >

(전기대비 연율, %)

| | 2006 | | | 2007 | | | | |
|-----------|--------|--------|--------|--------|--------|--------|--------|--------|
| | 연간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 실질GDP | 2.9 | 1.1 | 2.1 | 2.2 | 0.6 | 4.0 | 4.9 | 0.6 |
| 개인소비지출 | 3.1 | 2.8 | 3.9 | 2.9 | 3.7 | 1.4 | 2.8 | 1.9 |
| 민간투자 | 2.7 | -4.1 | -14.1 | -4.8 | -8.2 | 4.6 | 5.0 | -12.5 |
| 설비투자 | 5.9 | 2.9 | -4.9 | 1.3 | 0.3 | 4.7 | 6.2 | 3.3 |
| 주택건설투자 | -4.6 | -20.4 | -17.2 | -17.0 | -16.3 | -11.8 | -20.5 | -25.2 |
| 정부지출 | 1.8 | 0.8 | 3.5 | 2.0 | -0.5 | 4.1 | 3.8 | 2.2 |
| 순수출(10억불) | -624.5 | -633.8 | -597.3 | -556.5 | -612.1 | -573.9 | -533.1 | -506.8 |

자료 :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
 주 : 순수출은 연간 환산치임.

○ (EU) 내수 및 수출 경기의 동반 부진으로 경제 성장세 약화

- EU의 경제성장률은 2007년 3/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9%에서 4분기에 2.5%로 하락함
- 부문별로는 소비 및 투자 증가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율마저 하락하는 내외수 동반 부진의 모습을 나타냄
 - 가계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이 2007년 3/4분기에 전기동기대비 2.2%에서 4/4분기에 1.5%로 낮아짐
 - 총고정자본형성은 2007년 3/4분기 5.0%에서 4/4분기에 4.0%로 하락함
 - 수출 증가율은 유로화 강세의 영향으로 2007년 3/4분기 7.0%에서 4/4분기에 3.9%로 급락
- 국별로는 EU 내 경제 규모 비중이 가장 높은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독일 경제성장률은 2007년 3/4분기에 전기대비 연율로 2.7%에서 4/4분기에 1.1%로 하락
- 프랑스 경제성장률도 같은 기간 전기대비 연율로 3.2%에서 1.4%로 하락

< EU 지역의 국민계정 주요 지표 증감률 추이 >

(전년동기대비, %)

| | 2006 | | | 2007 | | | | |
|------------|------|-----|-----|------|-----|-----|-----|-----|
| | 연간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 실질 GDP | 3.0 | 3.0 | 3.4 | 2.9 | 3.5 | 2.7 | 2.9 | 2.5 |
| 가계최종소비지출 | 2.1 | 2.0 | 2.3 | 1.9 | 2.2 | 1.9 | 2.2 | 1.5 |
| 총고정자본형성 | 6.0 | 5.7 | 7.0 | 5.5 | 8.2 | 5.1 | 5.0 | 4.0 |
| 재화와 서비스 수출 | 8.9 | 6.0 | 7.8 | 4.7 | 4.5 | 3.4 | 7.0 | 3.9 |
| 재화와 서비스 수입 | 8.9 | 7.0 | 6.9 | 4.4 | 4.5 | 3.2 | 6.5 | 3.3 |

자료 : Eurostat.

주 : 유럽연합 27개국, 2000년 가격과 환율 기준임.

○ (일본) 수출 경기 호황 지속과 민간투자 확대로 일시적 경기 호조 시현

-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2007년 3/4분기에 전기대비 0.3%에서 4/4분기에 0.9%로 크게 상승
- 내수 부문 중에서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7년 3/4분기에 0.1%에서 4/4분기에 0.2%로 소폭 상승세를 기록함
- 투자 부문의 경우 민간주택투자가 침체를 지속하고 있으나, 민간설비투자의 경우 3/4분기 전기대비 1.1%에서 4/4분기에 2.9%로 크게 회복됨
 - 2007년 4/4분기 일본 민간 설비투자 급증 원인은 2007년 6월 20일 시행된 일본의 개정건축기준법의 영향으로 동년 3/4분기 위축되었던 투자가 반등하였기 때문임

- 한편 수출 증가율은 2007년 3/4분기와 4/4분기에 각각 2.9%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4/4분기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전기대비 성장률 0.9%의 절반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인 0.4%p에 달함

< 일본의 경제성장률 및 수요 부문별 증감률 추이 >

(전기대비, %)

| | 2006 | | | 2007 | | | | |
|------------|------|------|-----|------|------|------|------|------|
| | 연간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 실질 GDP | 2.4 | 0.2 | 4.2 | 2.1 | 0.9 | -0.4 | 0.3 | 0.9 |
| 민간소비 | 2.0 | -0.8 | 1.0 | 1.4 | 0.6 | 0.2 | 0.1 | 0.2 |
| 민간설비투자 | 4.3 | 0.7 | 1.5 | 2.7 | -0.3 | -1.5 | 1.1 | 2.9 |
| 민간주택투자 | 0.9 | 0.4 | 2.3 | -9.5 | -1.3 | -4.4 | -8.3 | -9.1 |
| 순수출기여도(%p) | 0.8 | 0.4 | 0.1 | 1.2 | 0.4 | 0.1 | 0.5 | 0.4 |
| 수출 | 9.7 | 2.2 | 0.8 | 8.8 | 3.5 | 1.1 | 2.9 | 2.9 |
| 수입 | 4.2 | -0.2 | 0.1 | 1.7 | 1.0 | 0.5 | -0.1 | 0.5 |

자료 : 일본내각부.

< 참고 > 일본의 2008년 1~2월 수출 동향

- 일본의 2008년 1~2월 통관기준 명목 수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8년 1~2월 수출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8.2%로 2007년 연간 증가율인 11.5%에 비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 국별로 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 미국 수출이 2007년 0.2%감소에서 2008년 1~2월에 4.7%감소로 부진세가 심화됨
- 한편 2위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경우에도 2007년 18.9%의 증가율에서 2008년 1~2월에 9.6% 증가율로 크게 하락

2) 중후진국 그룹

○ (중국) 소비 투자 호조 속, 수출 경기 둔화

-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07년 3/4분기와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1.5% 및 11.2%를 기록하였으나, 2008년 1/4분기에 10.6%로 하락함
- 부문별로는 소매판매 증가율은 2008년에 들어 20% 내외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고정투자의 경우에도 서부 대개발, 올림픽 관련 인프라 등의 국가 프로젝트 수요와 중국 내 기업들의 투자 확대 등으로 2008년 1~2월에 24.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 2008년에 들어 중국 수출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위안화 강세에 따르는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상실로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권에 대한 수출이 부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 증감률 추이 >

(전년동기대비, %)

| | 2006 | | | 2007 | | | | | 2008 | | |
|--------|------|------|------|------|------|------|------|------|------|------|------|
| | 연간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1/4 | 1월 | 2월 |
| 실질 GDP | 11.1 | 10.6 | 10.4 | 11.4 | 11.1 | 11.9 | 11.5 | 11.2 | 10.6 | - | - |
| 소매판매 | 13.7 | 13.8 | 14.3 | 16.8 | 14.9 | 15.8 | 16.8 | 19.0 | - | 21.2 | 19.1 |
| 고정투자 | 24.5 | 28.2 | 24.5 | 25.8 | 25.3 | 26.7 | 26.4 | 25.8 | - | 24.3 | |
| 수 출 | 27.2 | 28.7 | 28.9 | 25.7 | 27.9 | 27.4 | 26.2 | 22.2 | - | 26.6 | 6.5 |
| 수 입 | 20.0 | 22.1 | 15.5 | 20.8 | 18.2 | 18.2 | 20.7 | 25.4 | - | 27.5 | 35.1 |

자료 : 한국은행.

주 :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도시 누계 전년동기 기준임.

○ (ASEAN) 고성장 지속

- ASEAN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2005년에 5.6%, 2006년에 6.0%에 이어, 2007년에도 성장세가 높아질 것으로 추정
- 필리핀은 2006년에는 5.3% 성장에 머물렀으나, 2007년 들어와 7%가 넘는 고성장세를 지속중임
- 싱가포르의 2007년 경제성장률은 2006년 7.9%보다 약 2%p 높아진 10% 내외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또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도 2007년 6%대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며, 태국의 2007년 경제성장률은 2006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4%대 후반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ASEAN 경제성장률 추이 >

(전년동기대비, %)

| | 2005 | 2006 | 2007 | | | |
|--------|------|------|------|------|------|-----|
| | | | 1/4 | 2/4 | 3/4 | 4/4 |
| ASEAN | 5.6 | 6.0 | - | - | - | - |
| ASEAN5 | 5.2 | 5.6 | - | - | - | - |
| 필리핀 | 4.9 | 5.3 | 7.1 | 7.6 | 6.6 | 8.5 |
| 인도네시아 | 5.7 | 5.5 | 6.1 | 6.4 | 6.5 | 6.3 |
| 말레이시아 | 5.0 | 5.9 | 5.5 | 5.8 | 6.7 | - |
| 싱가포르 | 6.6 | 7.9 | 8.1 | 10.7 | 11.1 | 7.2 |
| 태국 | 4.5 | 5.0 | 4.5 | 4.6 | 4.9 | - |
| BCLMV | 7.7 | 8.1 | - | - | - | - |
| 브루나이 | 0.4 | 5.1 | -3.5 | 0.3 | - | - |
| 캄보디아 | 13.6 | 10.8 | 8.2 | 9.4 | 8.2 | - |
| 라오스 | 7.3 | 8.3 | - | - | - | - |
| 미얀마 | 4.5 | 7.0 | - | - | - | - |
| 베트남 | 8.4 | 8.2 | 7.7 | 8.0 | - | - |

자료 : ASEAN Finance and Macro-economic Surveillance Unit Database, 각국 중앙은행.

주 : 자국통화의 불변가격 기준 실질 GDP 증가율임.

○ (인도) 9%대 성장률 유지

- 인도 경제성장률은 2006년 9.4%에 이어, 2007년에도 9.6%의 고성장 수준을 기록함
- 산업별로는 건설 경기 호조로 건설업, 부동산관련업 등이 고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제조업과 유통업 등 소비 관련 업종도 10% 이상의 강한 성장세를 보이며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인도의 산업별 생산 증가율 추이 >

(전년동기대비, %)

| | 2006 | | | | 2007 | | | |
|--------------|------|------|------|------|------|------|-----|-----|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 실질 GDP | 10.0 | 9.6 | 10.2 | 8.7 | 9.1 | 9.3 | 8.9 | 8.4 |
| 농림어업 | 6.2 | 2.8 | 2.9 | 1.6 | 3.8 | 3.8 | - | - |
| 통신사회개인서비스 | 7.2 | 11.3 | 8.3 | 6.7 | 5.7 | 7.6 | - | - |
| 건설업 | 16.1 | 10.5 | 11.1 | 10.0 | 11.2 | 10.7 | - | - |
| 전기가스수도공급 | 6.1 | 5.8 | 8.1 | 9.1 | 6.9 | 8.3 | - | - |
|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 | 14.2 | 10.8 | 11.1 | 11.2 | 9.3 | 11.0 | - | - |
| 제조업 | 9.4 | 12.3 | 12.7 | 11.8 | 12.4 | 11.9 | - | - |
| 광업 | 5.2 | 3.7 | 3.9 | 5.5 | 7.1 | 3.2 | - | - |
| 유통숙박음식 | 11.8 | 12.4 | 14.2 | 13.1 | 12.4 | 12.0 | - | - |

자료 : RBI(Reserve Bank of India).

< 참고 > 인도 경제의 버블 붕괴 우려

- 인도도 중국의 경우와 같이 높은 인플레이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데, 2005년까지 4% 내외에서 안정되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06년에 6.3%, 2007년에 6.4%로 상승
- 또한 통화(M3) 증가율도 2006년의 19.4%에서 2007년에는 22.8%로 급증
- 특히 인도 주식시장의 주가지수가 2008년 3월에 전년말월대비 22.9%나 하락하는 경제 버블 붕괴 우려가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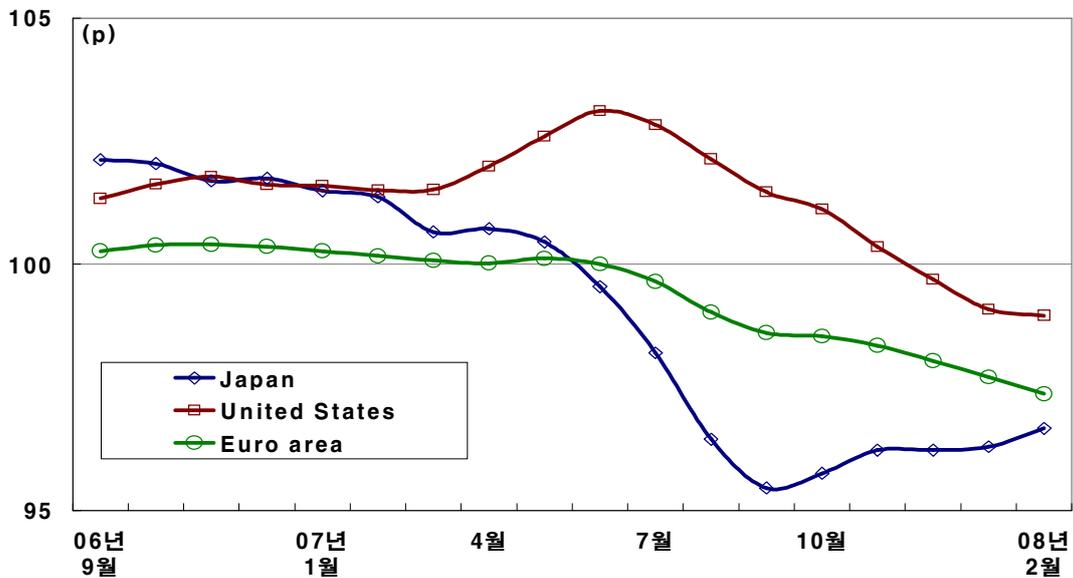
3. 2008년 세계 경제의 리커플링 (또는 디커플링) 가능성 판단

1) 주요국 경기선행지수로 살펴 본 세계 경제의 향방

○ OECD 경기선행지수 기준으로 선진국 경기둔화(Slowdown) 예상

- OECD 신 경기선행지수(Amplitude adjusted Leading Indicators)²⁾의 움직임과 6개월의 선행지수 시차를 고려할 때, 미국은 2008년 4월 현재 경기 정점을 지나 경기후퇴(Downturn) 국면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판단
 - 나아가 2008년 6월 이후에는 본격적인 불황 국면인 경기둔화(Slowdown) 상황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유로 지역의 경우 상당히 장기간 완만하게 경기둔화가 진행되는 (Moderate Slowdown) 경기 국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미국, 유로지역, 일본의 CLI 추이 >



자료 : OECD.

2) 이는 OECD가 기존에 사용하던 순환요인과 추세요인이 공존하는 Trend restored Series의 CLI 6개월 변동률(Annualised 6-month rate of change of a CLI)이 경기선행지표로서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에 OECD는 2007년 11월 이후부터는 장기추세를 100으로 조정하여 경기 전환 시점뿐만 아니라, 경기 국면의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는 OECD 新 경기선행지수 (OECD total CLI: Amplitude adjusted Leading Indicators)를 주지표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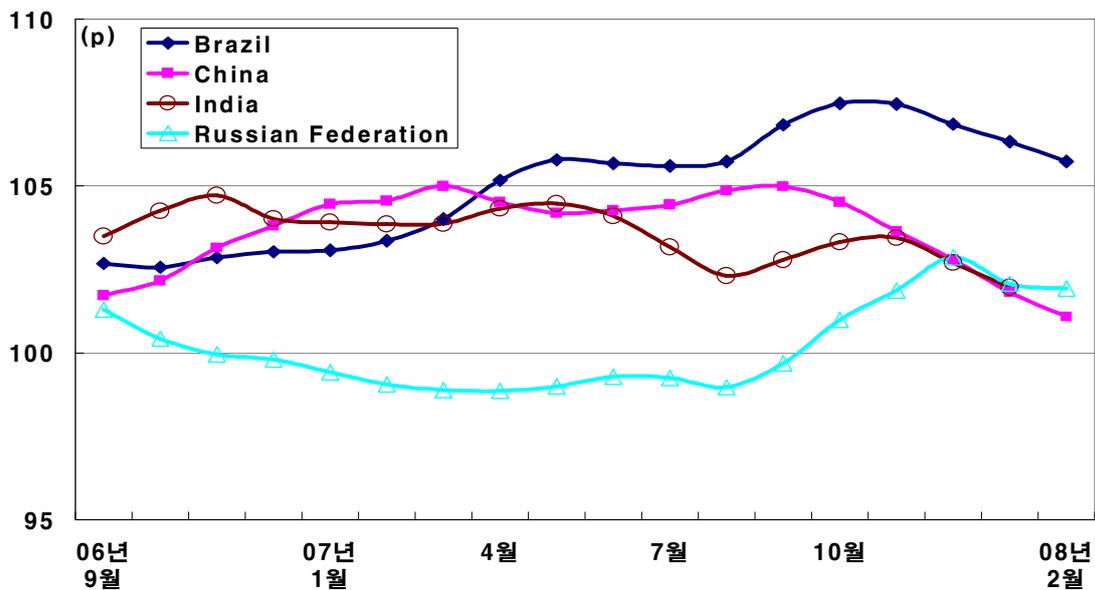
참고로 OECD는 신 경기선행지수는 국별로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실제 경기에 2분기 정도의 선행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2008년 4월 현재 경기 정점을 지나 경기후퇴(Downturn) 국면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일본 경기선행지수가 2007년 9월을 전환점으로 2008년 2월까지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만 놓고 본다면 2008년 4월 현재는 경기 회복 국면에 위치해 있다고도 볼 수 있음
 - 그러나 OECD에서는 이러한 일본 경기선행지수의 디커플링에 대해, 기업 설비투자 관련 선행지표 호조로 인하여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음

○ OECD 경기선행지수 기준으로 BRICs 경기후퇴(Downturn)³⁾ 국면에 위치

- 선진국과는 달리 BRICs 경제의 경기선행지수는 2008년 2월 현재 모두 장기추세선 100을 상회하고 있음
- 선행지수의 시차 6개월을 고려해 본다면, 2008년 4월 현재 BRICs 모두는 경기 정점을 막 지나 경기후퇴(Downturn) 국면에 위치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

< BRICs의 CLI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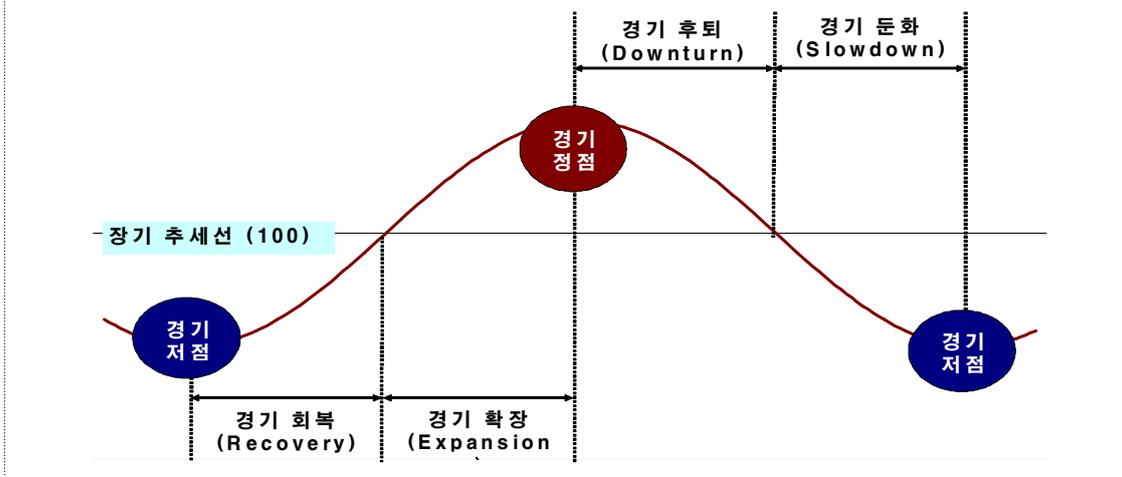
자료 : OECD.

3) OECD는 회원국에 대한 경기선행지수뿐만 아니라 일부 비중있는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경기선행지수를 발표하고 있음.

< 참고 > OECD 신경기선행지수(Amplitude adjusted Leading Indicators)

- OECD의 경기선행지수는 우선 100 이상에서 추세가 전환될 경우, 6개월 후 경기 고점이 형성될 것으로 봄
- 반대로 100 이하에서 추세가 전환될 경우, 6개월 후에 경기 저점이 형성될 것임을 예고
- 경기 국면별로는 확장 → (고점) → 후퇴 → 둔화 → (저점) → 회복의 꺾면으로 구분하고 있음
 - 경기 확장 (Expansion) - 100이상에서 상승
 - 경기 후퇴 (Downturn) - 100이상에서 하락,
 - 경기 둔화 (Slowdown) - 100이하에서 하락,
 - 경기 회복 (Recovery) - 100이하에서 증가

< OECD 경기선행지수의 국면별 위치 >



2) IMF의 주요국 전망 변화를 통해 본 세계 경제 전망⁴⁾

○ IMF의 2007년 10월 이후의 총 3번에 걸친 세계경제의 수정 전망을 통해 살펴보면, 2008년 세계 경제의 동반 부진은 불가피하나 중후진국 경기 둔화 폭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됨

4) 2006년 이전까지만 해도 IMF의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은 매년 4월말과 9월말 두 번에 걸쳐 발표하는 것이 관례이었음. 그러나 미 서브프라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례적으로 2007년 4월, 7월, 10월, 2008년 1월, 4월초 등 불과 1년여 만에 총 5번의 수정 전망을 발표함.

- 2008년 선진국 경제성장률의 경우 2007년 7월에 2.8%에서 2008년 4월에 1.3%로 약 1.5%p 하향 조정되었음
- 2008년 신흥시장 및 개도국의 경우 2007년 7월에 7.6%에서 2008년 4월에 6.7%로 0.9%p 하향 조정되는 데 불과
 - 이 하향 조정 폭은 선진국의 조정 폭보다 낮으며, 특히 신흥시장 및 개도국의 평균적인 높은 성장 속도를 고려한다면 매우 미약한 하향 조정 수준으로 판단됨

< 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

(%)

| | | 2006 | 2007 ^A | 2008(E) | | | | A-B (%p) |
|---------------|------------|------|-------------------|-----------|------------|-----------|------------------------|-------------|
| | | | | 07년 7월 | 07년 10월 | 08년 1월 | 08년 4월 ^B | |
| 경제 성장 률 | 세계 | 5.0 | 4.9 | 5.2 | 4.8 | 4.1 | 3.7 | 1.2 ↓ |
| | 선진국 | 3.0 | 2.7 | 2.8 | 2.2 | 1.8 | 1.3 | 1.4 ↓ |
| | 미국 | 2.9 | 2.2 | 2.8 | 1.9 | 1.5 | 0.5 | 1.7 ↓ |
| | 유로 지역 | 2.8 | 2.6 | 2.5 | 2.1 | 1.6 | 1.4 | 1.2 ↓ |
| | 일본 | 2.4 | 2.1 | 2.0 | 1.7 | 1.5 | 1.4 | 0.7 ↓ |
| | NIEs | 5.6 | 5.6 | 4.8 | 4.4 | - | 4.0 | 1.6 ↓ |
| | 신흥시장 및 개도국 | 7.8 | 7.9 | 7.6 | 7.4 | 6.9 | 6.7 | 1.2 ↓ |
| | 중국 | 11.1 | 11.4 | 10.5 | 10.0 | 10.0 | 9.3 | 2.1 ↓ |
| | ASEAN-4 | 5.7 | 6.3 | 5.7 | 5.6 | - | 5.8 | 0.5 ↓ |
| 세계 교역량 증가율 | | 9.2 | 6.8 | 7.4 | 6.7 | - | 5.6 | 1.2 ↓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07년 10월).

주 : ASEAN-4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임. 08년도는 베트남을 추가한 ASEAN-5의 값임.

3) 2008년 세계 경제 향방에 대한 판단

○ 2008년 세계 경제는 경기 추세 상 리커플링 국면에 들어갈 것은 분명해 보이나, 경기 국면과 경기 하강 속도 측면에서는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되는 제한적 리커플링이 예상됨

- 2007년의 경우 선진국과 신흥 개도국 간의 경기 추세는 물론 경제성장률 측면에서도 디커플링이 발생

- 2007년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2006년의 3.0%에서 0.3%p가 하락한 2.7%를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신흥 개도국의 경우 7.8%에서 7.9%로 오히려 소폭 상승
- 2008년의 경우, IMF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준으로 선진국은 2.7%에서 1.3%로 1.4%p가 하락하고, 신흥개도국의 7.9%에서 6.7%로 1.2%p가 하락
 - 이와 같이 절대적인 수준에서도 신흥개도국의 성장률 하락폭이 더 적을 뿐만 아니라, 신흥 개도국들과 선진국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고려할 경우 신흥개도국의 경기 하강 폭은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판단
 - 특히 OECD 경기선행지수를 살펴보면 선진국은 경기 하강세가 본격화되는 경기 둔화 국면이, BRICs 국가들은 경기 하강 초반에 해당하는 경기 후퇴 국면이 예고되어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세계 경제는 2007년의 디커플링 현상이 종결되고 2008년에는 선진국과 중후진국의 경기 추세가 동반 하강하는 리커플링 국면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경기 부진세의 정도는 선진국들이 중후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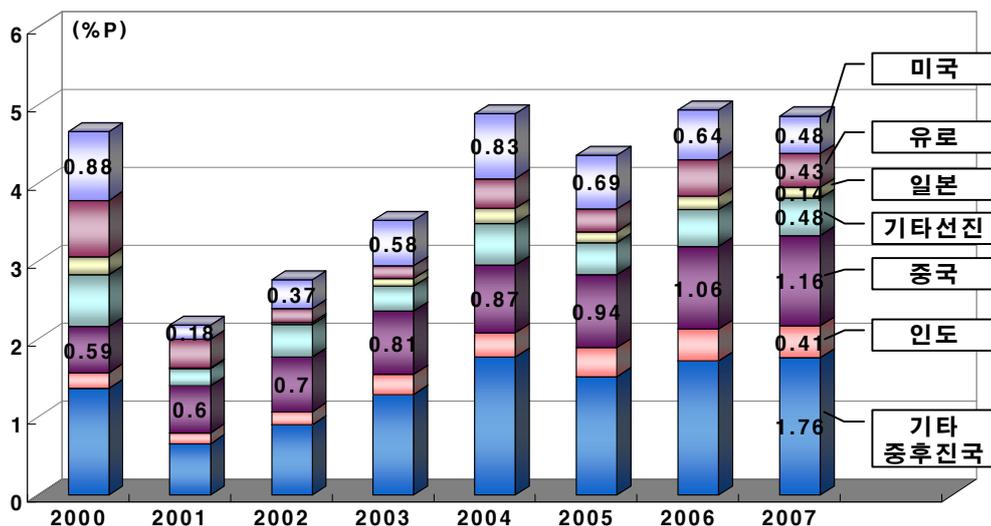
4. 제한적 리커플링의 원인

○ 중후진국의 세계 성장 기여도 급증

- 2007년 시장 가격 기준으로 미국, 중국, EU, 일본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2%에 달함
 - 단일 국가로는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이 25.9%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EU가 최근 동유럽 국가들을 가입시켜 그 경제 규모가 31.1%를 차지함⁵⁾

- 일본은 8.1%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6.1%로 미국, 일본, EU의 규모에 아직 미치지 못함
- 성장 기여 측면에서 보면 구매력(PPP)기준 2007년 세계 경제성장률 4.86%중에서 선진국의 기여도는 1.53%p (세계 경제성장을 100으로 보았을 때 기여율 31.5%)에 불과한 반면, 중후진국의 기여도는 3.33%p (기여율 68.5%)에 달함
 - 2007년 세계 구매력(PPP)기준 GDP에 대한 중국의 성장 기여도는 세계 경제 성장분(구매력 기준 실질 성장률 4.9%)에 대해, 1.16%p의 기여도(23.9%의 기여율)을 기록
 - 반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경제 규모가 가장 높은 미국은 세계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0.48%p (기여율 9.9%)에 불과
 - 한편 유로 지역과 일본의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각각 0.43%p 및 0.14%p에 그치고 있음

< 2007년 주요 지역의 세계 경제 성장(PPP 기준)에 대한 기여도 추이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8년 4월).

5) 2003년까지 15국으로 구성된 EU는 2004년 5월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몰타, 사이프러스 10개국이 신규로 가입하였고, 2007년 1월에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도 가입하여 27개국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 경제권을 형성함.

○ 미국의 세계 수입 기여도 약화

- 미국의 2006년 총수입액은 약 1조 9,000억 달러로 세계 전체 상품 수입의 15.5%로 비중 1위국에 해당됨
 - 다음으로 독일의 경우 약 9,000억 달러로 세계 수입액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약 7,900억 달러로 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수입 상위 10개국(2006년)⁶⁾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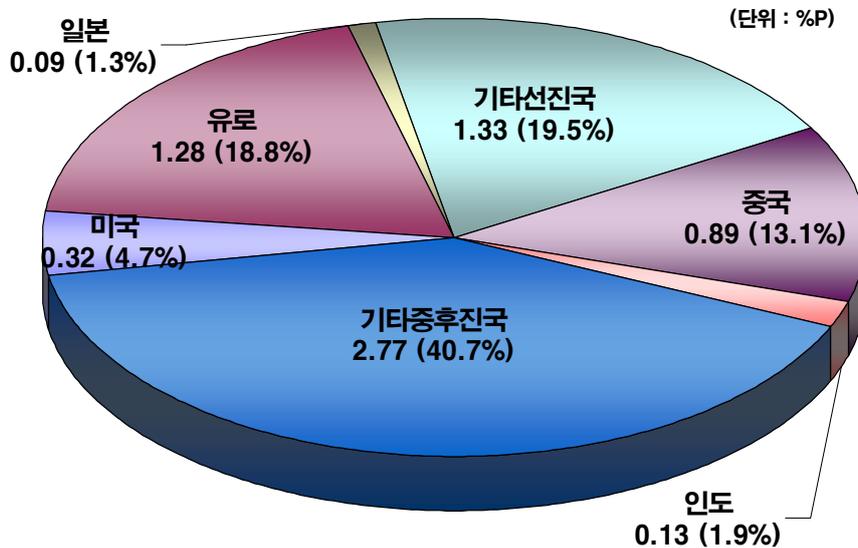
| | | 수입액 (억 달러) | 비중 (%) |
|----|------|------------|--------|
| 1 | 미국 | 19,194.3 | 15.5 |
| 2 | 독일 | 9,086.3 | 7.3 |
| 3 | 중국 | 7,914.6 | 6.4 |
| 4 | 영국 | 6,193.9 | 5.0 |
| 5 | 일본 | 5,795.7 | 4.7 |
| 6 | 프랑스 | 5,348.9 | 4.3 |
| 7 | 이탈리아 | 4,373.9 | 3.5 |
| 8 | 네덜란드 | 4,164.5 | 3.4 |
| 9 | 캐나다 | 3,576.5 | 2.9 |
| 10 | 벨기에 | 3,537.2 | 2.9 |

자료 : 세계무역기구.

- 그러나 각국의 세계 수입 증가분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면, 2007년 세계 수입 증가분을 100으로 보았을 때 유로 지역이 가장 높은 18.8%의 기여율을 기록함
 - 다음으로는 중국이 13.1%로 2위의 기여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기타 중후진국이 40.7%를 기록하고 있음
 - 한편 세계 수입 비중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세계 수입 증가분에 대한 기여율은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6) merchandise 수입액 기준이며, 괄호 안은 세계 전체 수입액 대비 비중.

< 주요국 수입 기여도 및 기여율(2007년)⁷⁾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 참고 > 주요국 경제의 수출의존성

- 미국, EU, 일본의 내수 부문 대비 수출 비중은 각각 7.9%, 10.3%, 16.6%에 불과한 반면, 중국과 한국의 수출 비중은 각각 40.8% 및 39.4%에 달함

< 2007년 기준 주요국 수출/내수 비중 >

(단위 : 억 달러)

| | 명목GDP | 수출액 | 수입액 | 내수액 | 수출/내수비중 |
|----------|---------|----------|----------|---------|---------|
| 미국 | 138,438 | 11,627 | 19,537 | 146,348 | 7.9% |
| EU | 168,301 | 17,507 | 19,855 | 169,766 | 10.3% |
| (역내교역포함) | | (53,057) | (54,522) | | (31.3%) |
| 일본 | 43,838 | 7,127 | 6,209 | 42,919 | 16.6% |
| 중국 | 32,508 | 12,182 | 9,563 | 29,889 | 40.8% |
| 한국 | 9,571 | 3,715 | 3,568 | 9,424 | 39.4%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주 : 1) EU 및 일본 수출입액은 2007년 평균 엔/달러 환율 및 달러/유로 환율로 계산
- 2) 내수란 명목GDP-(수출액-수입액)이며, 소비와 투자를 합한 개념임
- 3) EU의 역내교역제외는 27개 회원국에 대한 수출입을 제외한 것임.

7) 2007년 세계 수입 증가분에 대한 주요국의 기여도 (%p)를 의미하며, 괄호 안은 세계 수입 증가분을 100으로 보았을 때 각국의 기여율을 의미함.

5. 정책적 시사점

○ 수출의 성장 기여도 하락에 대비한 투자 활성화가 시급함

- ‘팩키지형 투자 활성화 정책’을 통해 기업 투자심리 위축을 방지해야 함
 - 기존에 추진중인 투자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완화 등의 정책이 조속하게 현실화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 이중 과세 금지, 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의 기업 활동 관련 세법의 정비도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불법 노사 분규시 엄정한 대처를 통해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하며, 노사간 자율 교섭 문화 정착을 유도해야 할 것임
- 급감하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유무형의 외국인 투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외국인 투자 관련 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의 강화가 요구됨
 - 외국인 투자 전용 특구 조성 계획을 확대하는 동시에 특구 내 법률, 조세, 회계 등의 경영 지원 서비스와 교육, 의료 등의 생활 인프라 서비스 체계도 제공되어야 할 것임

○ 급격한 경기 하강 방지를 위한 소비 부문의 경기 안전판 역할 강화

- 단기적으로 경기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이나 감세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소비 심리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서민 물가 안정에 주력해야 할 것임
 -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 억제, 수입 농산물 및 공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을 통해 서민 생필품 지출 급증을 막아야 할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시장 개입을 통한 가격 통제는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농산물 유통 체계의 개혁,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물가 안정 노력이 필요함

○ 대미 수출 부진에 대비하여,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 노력이 필요함

-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모두 한미 FTA의 조속한 체결 의지를 피력한 것과 관련하여, 반드시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서 한미 FTA를 완결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자동차 시장 개방 등 한미 FTA 비준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요 부문별 현안에 대해서는 미 의회와 미국 내 이해단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설득도 병행해야 할 것임
- 또한 한미 FTA를 계기로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에 대한 홍보 등 정부차원의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미국 현지 마케팅을 실시함으로써, 한미 FTA 체결로 볼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수출 경기 급랭 방지를 위한 非 미주 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가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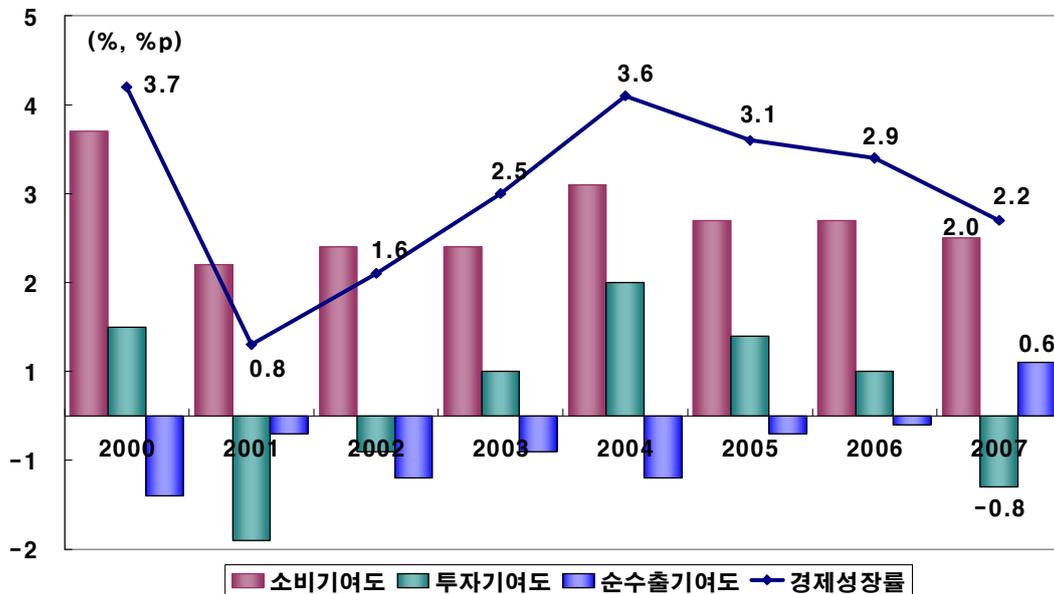
-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과, 중동, BRICs 등의 신흥공업국, 오일 달러로 구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중동 등 비 미주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 확대 노력이 요구됨
- 우선 한국이 전통적으로 무역 역조를 보이고 있는 일본, 유로화 강세로 구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EU 지역에 대한 FTA를 조속히 추진해야 함
- 특히 남미나 CIS 산유국, 중동 등 최근 오일 달러로 구매력이 높아진 시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세일즈 외교가 확대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신흥 시장 개척을 위해, 해당국의 경제 상황, 투자 관련 규제 등과 같은 투자 환경 자료와, 소비자 선호도, 유통 물류망과 같은 시장 정보 제공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임

【부록 1】 2007년 주요국의 성장 동력 (소비, 투자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

○ (미국) 소비 중심의 성장

- 소비가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최근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상승함
- 비록 소비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2004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2007년 현재 2.0%p로 절대적인 성장 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반면 투자 기여도는 2004년 이후 빠른 속도로 하락하여 2007년에는 마이너스 0.8%p로 성장을 하락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동안 성장률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순수출 기여도의 경우, 2007년에 들어 0.6%의 플러스로 반전됨

<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성장기여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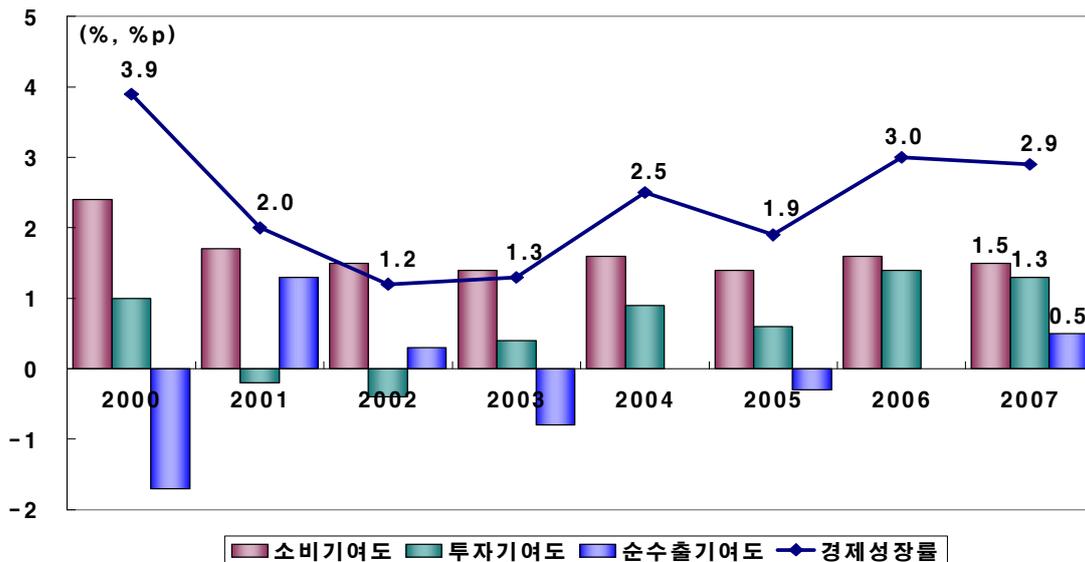
자료 : 미 경제분석국.

주 : 소비, 투자, 순수출 기여도를 합할 경우 이론 상 경제성장률과 일치해야 하나, 실제로는 통계상 불일치 항목 등의 영향으로 일치하지 않음.

○ (EU) 내수 부문 중심의 성장 지속

- 내수 중심의 성장 패턴이 지속되는 가운데, 2007년에 들어 수출 기여도가 크게 높아지는 양상을 나타냄
- 2007년의 소비 기여도는 1.5%p로 전체 경제성장률 2.9%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 투자 부문의 기여도는 2003년 이후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7년에 들어서는 1.3%p로 소비 부문 기여도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냄
- 소비와 투자의 내수 부문 기여도는 2007년에 2.8%p로 전체 경제성장률 2.9%에 대해서 약 97%의 기여율을 기록함
- 한편 2006년까지 마이너스를 기여도를 나타내었던 순수출 부문의 경우, 2007년에 들어 0.5%의 플러스 기여도를 나타냄

< EU의 경제성장률과 성장기여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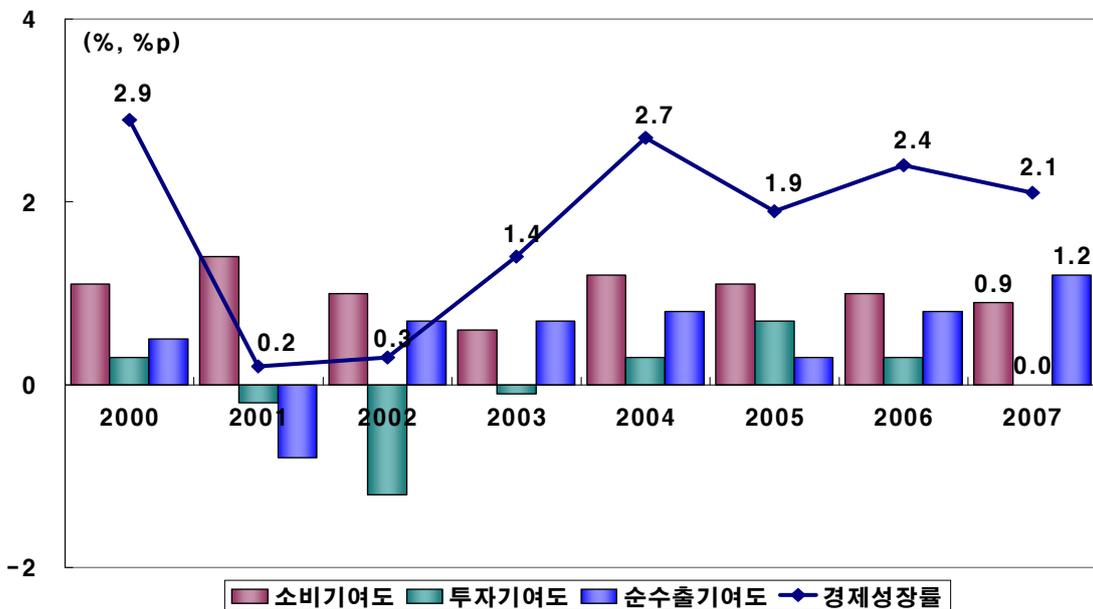
자료 : EU Eurostat.

주 : 소비, 투자, 순수출 기여도를 합할 경우 이론 상 경제성장률과 일치해야 하나, 실제로는 통계상 불일치 항목 등의 영향으로 일치하지 않음.

○ (일본) 소비 및 수출 중심의 성장 구조

- 2007년 연간 전체로는 투자 부문이 성장에 기여하지 못한 반면, 소비와 수출이 성장을 이끌어 가는 구조를 나타냄
- 소비 부문의 성장기여도는 2004년 이후 연간 약 1%p 내외의 성장 기여도를 유지하였으며, 2007년에도 경제성장률 2.1%의 절반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인 0.9%p의 성장기여도를 나타냄
- 투자 부문은 2004년 이후 소폭 플러스의 성장기여도를 나타내었으나, 2007년에 들어서는 경제 성장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02년 이후 일본의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순수출 기여도는 2007년에 들어 소비 부문보다 높은 수준인 1.2%p의 성장 기여도를 나타냄

< 일본의 경제성장률과 성장기여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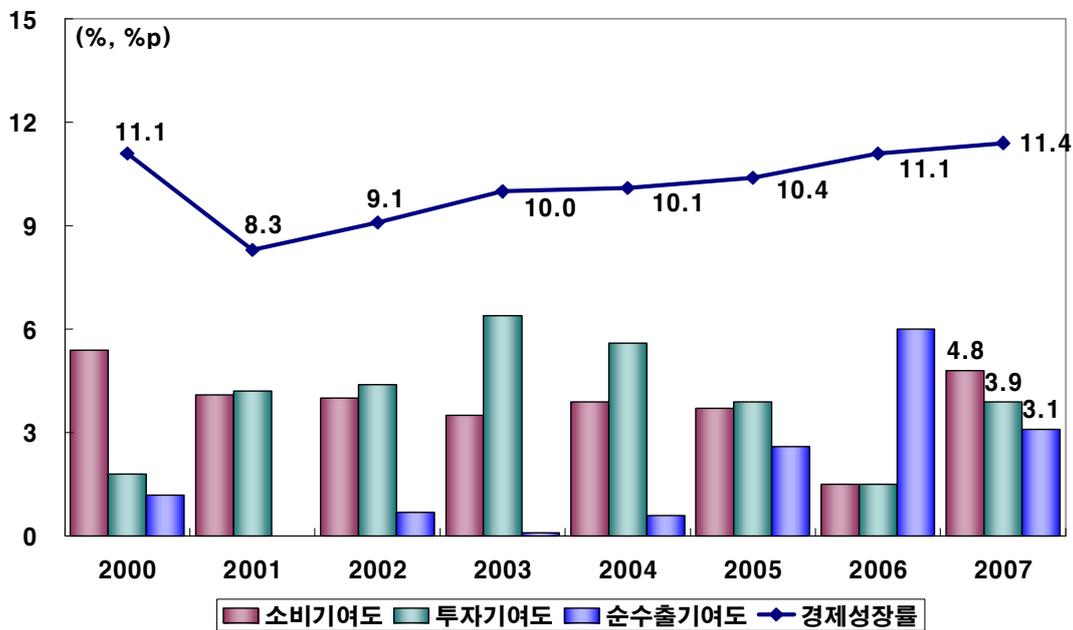
자료 : 일본내각부.

주 : 소비, 투자, 순수출 기여도를 합할 경우 이론 상 경제성장률과 일치해야 하나, 실제로는 통계상 불일치 항목 등의 영향으로 일치하지 않음.

○ (중국) 내외수 균형 성장 패턴

- 2006년은 순수출이 경제 성장을 주도한 반면, 2007년의 경우 소비 및 투자의 기여도가 순수출 기여도를 상회함
- 2007년 소비 부문의 성장기여도는 4.8%p로 전체 경제성장률 11.4%에 대해 42.1%의 성장기여율을 기록함
- 또한 투자 부문 기여도는 2.9%p로 전체 경제 성장에 대해 34.2%의 기여율을 나타냄
- 2004년 이전에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던 순수출 기여도는 2005년 이후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냄 (2007년 기여도는 3.1%)

<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성장기여도 추이 >



자료 : 중국통계국.

주 : 소비, 투자, 순수출 기여도를 합할 경우 이론 상 경제성장률과 일치해야 하나, 실제로는 통계상 불일치 항목 등의 영향으로 일치하지 않음.

【부록 2】 OECD CLI 6개월 변동률(연율)의 의미

○ OECD CLI 6개월 변동률(annualised 6-month rate of change of a CLI)의 의미

- 현재 OECD는 2007년 9월 지표 (2007년 11월 발표)부터 개편된 OECD 경기 선행지수 편제 방식을 따라, 주된 경기선행지표로 OECD Total CLI(amplitude adjusted Leading Indicators)를 사용
 - 보다 정확하게는 경기순환요인과 추세가 혼합된 Trend restored Series의 6개월 연율 변화율을 의미함

○ OECD CLI 6개월 변동률의 중요성

- 개편 이전에는 CLI 6개월 변동률을 주된 지표로 사용하였으며, 지수 개편 이후에도 이 지표는 경기 고점과 저점 등의 경기 변환점을 찾아내는 데 중요한 보조 지표로 사용
- OECD는 CLI의 6개월 변동률(연율)은 회원국별로 차이는 있으나, 통상 경기 변동에 6~9개월 정도 선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OECD CLI 6개월 변동률 계산 방식

- OECD CLI 6개월 변동률(연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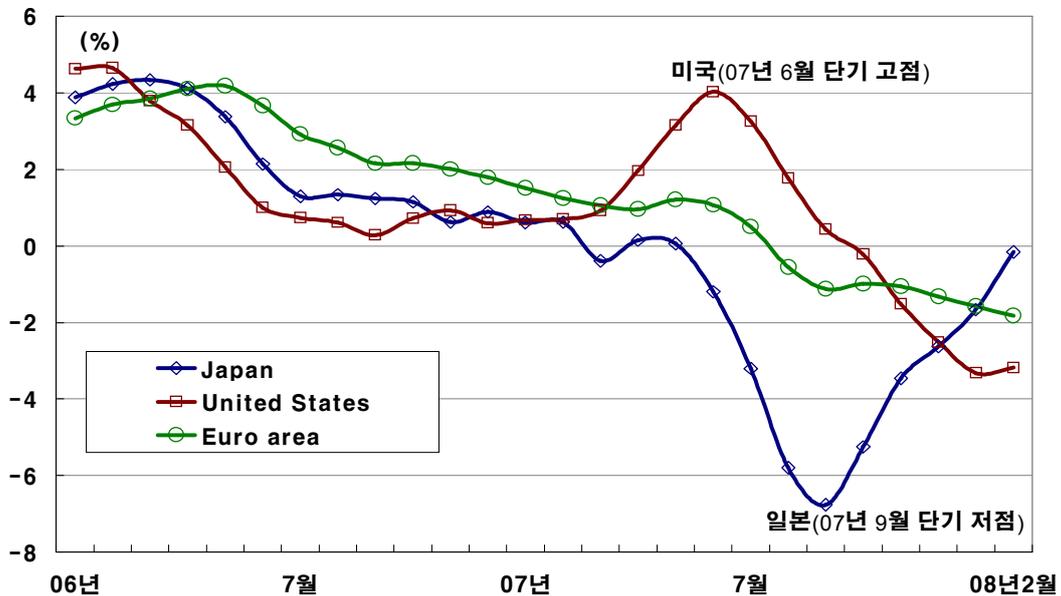
$$R_t = \left[\left\{ \frac{C_t \times 12}{\sum_{i=1}^{12} C_{t-i}} \right\}^{\frac{12}{6.5}} - 1 \right] \times 100$$

- C_t 는 t 시점에서의 CLI 원지수이며, 따라서 $\sum_{i=1}^{12} C_{t-i}$ 는 $t-1$ 기부터 $t-12$ 기까지의 CLI의 합을 의미함
- 6.5라는 수치는 $t-1$ 기부터 $t-12$ 기까지의 중간 시점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frac{12}{6.5}$ 는 연율 환산을 위한 비율치가 됨

○ 최근 OECD CLI 6개월 변동률로 살펴본 주요국 경기 전망

- OECD CLI 6개월 변동률에 의하면 선진국들의 경우 6개월여의 선행 시차를 고려할 때, 미국은 2007년말 경기 고점을 형성하고 추세가 전환됨
- 유로 지역의 경우 이미 2006년 하반기 경에 경기 고점을 형성하며 추세가 전환되었으며, 2007년 하반기 이후 지금까지 경기 둔화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일본의 경우 그래프 상으로는 2007년 9월을 저점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으나, OECD는 이에 대해 일본의 2007년 하반기 선행지수의 상승은 제도적 요인에 따르는 일시적 기업 투자의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고 언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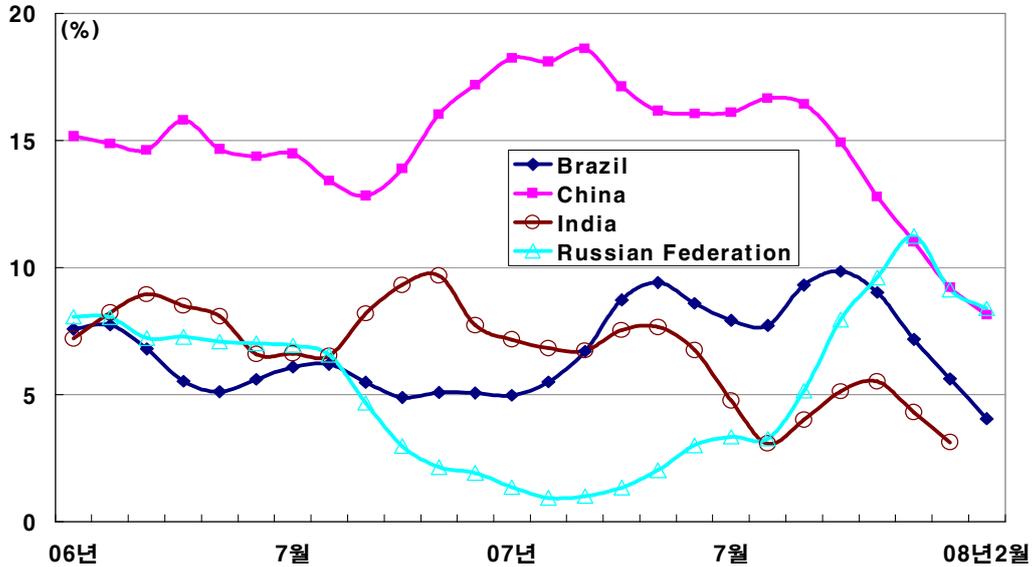
< 선진국 CLI의 6개월 변동률(연율) >



자료 : OECD.

- 한편 BRICs의 경우 2007년 하반기 경기 고점을 형성하고 이제 막 추세가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 아직 경기 하강이 본격화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움

< BRICs CLI의 6개월 변동률(연율) >



자료 : OECD.

【부록 3】 주요 지역의 수출 연관 관계

- 세계 주요 지역의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일본, 중국 등이 자국 총수출의 20% 내외, EU는 역내 수출의 6.7%에 불과, 한국도 12.3%에 그치고 있음

< 세계 주요 지역의 교역(수출) 연관 관계 >

(%)

| | 대미국 수출비중 | 대중국 수출비중 | 대EU 수출비중 | 대일본 수출비중 | 대한국수출 비중 | 기타지역 수출비중 |
|----------------|---------------|--------------|-------------|--------------|--------------|----------------|
| 미국 | | 6.3 | 26.5 | 6.0 | 3.4 | 57.8 |
| 중국 | 19.1 | | 19.3 | 8.4 | 4.6 | 48.6 |
| EU (역내수출포함) | 20.2 (6.7) | 5.5 (1.8) | (67.0) | 3.3 (1.1) | 1.9 (0.6) | 69.1 (22.8) |
| 일본 | 20.1 | 15.3 | 14.8 | | 7.6 | 42.2 |
| 한국 | 12.3 | 22.1 | 15.1 | 7.1 | | 43.4 |

자료 : 미국 BEA(Bureau of Economic Analysis), 중국통계국, EU Eurostat, 일본통계국,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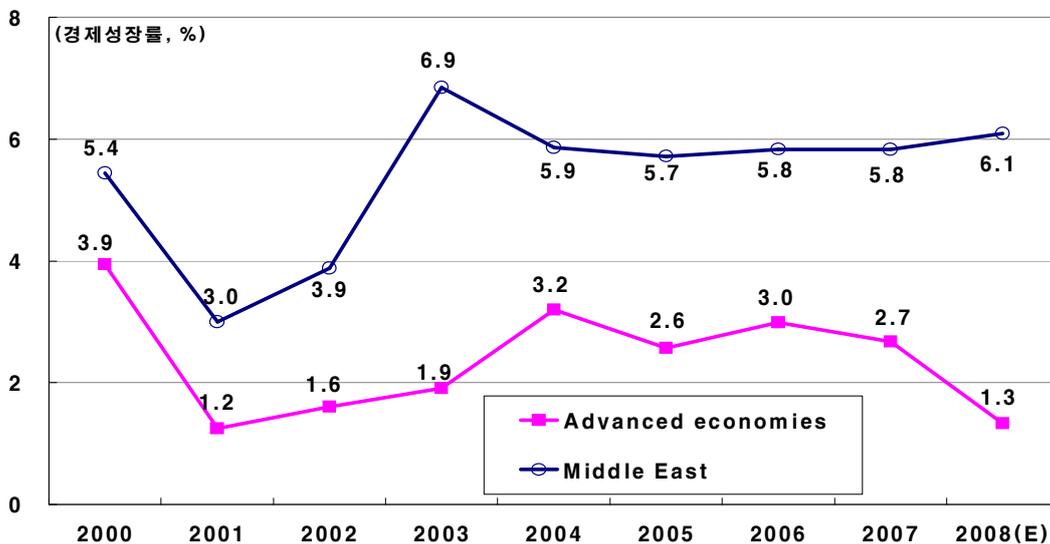
주 : 자료는 전세계 수출입에서 행에 위치한 지역의 열에 위치한 지역에 대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

【부록 4】 산유국과 비산유국 간의 디커플링⁸⁾

○ 글로벌 경제의 또 다른 디커플링으로는 산유국과 비산유국의 디커플링 현상이 있으며, 향후 고유가 시대가 고착화될 것으로 보여 산유국-비산유국 디커플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반면 최근 선진국과 산유국간 나타나는 디커플링은 성장률 격차가 확대되면서, 추세도 서로 다른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특징을 가짐
 - 선진국과 중후진국 간의 디커플링은 추세는 동행성을 보이지만, 성장률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임
-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은 2004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동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2003년 6.9%를 기록한 이후 5%대 후반의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음

< 산유국과 선진국 간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8년 4월).
 주 : 2008년은 IMF 전망치.

8) 엄밀하게 정의하면 산유국에는 미국, 중국 등의 국가들도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산유국은 원유 순수출이 +인 국가들을 의미함. 또한 중동 지역 국가들중 원유 수출국이 아닌 국가들도 존재하지만, 자료 이용의 제약상 본 보고서에서는 중동지역 전체의 성장률과 경상수지를 산유국의 그것을 대리하는 변수로 간주함.

- 이러한 선진국-산유국간 디커플링 현상은 유가 급등으로 산유국들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라 산유국들의 경제성장률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기 때문임
 - 중동 지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00년 약 714.7억 달러에서 2008년에 3,983.3억 달러로 약 5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중동 지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1.4%에서 23.0%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중동 지역 경상수지 흑자 및 두바이 유가 추이 >

| | 경상수지 | | 두바이유가 | |
|---------|-----------|------------|------------|--------|
| | 금액 (억 달러) | 대GDP 비중(%) | 가격 (달러 배럴) | 증가율(%) |
| 2000 | 714.7 | 11.4 | 26.27 | 51.6 |
| 2001 | 398.9 | 6.3 | 22.84 | -13.1 |
| 2002 | 303.0 | 4.8 | 23.88 | 4.6 |
| 2003 | 590.6 | 8.3 | 26.80 | 12.2 |
| 2004 | 970.9 | 11.8 | 33.64 | 25.5 |
| 2005 | 2,003.4 | 19.7 | 49.37 | 46.8 |
| 2006 | 2,473.3 | 20.9 | 61.55 | 24.7 |
| 2007 | 2,746.1 | 19.8 | 68.43 | 11.2 |
| 2008(E) | 3,983.3 | 23.0 | 92.25 | 34.8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8년 4월), 한국석유공사.

주 : 1) 2008년 경상수지는 IMF 전망치

2) 두바이유가는 연평균 가격 기준이며, 2008년은 4월 11일 현재가격 기준.

주 원 연구위원(3669-4030, juwon@hri.co.kr)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국내 인플레이 압력 증대

○ 2008년 3월 가공단계별 물가는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 급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7.0% 상승 (전월대비 4.2% 상승)

- 향후 국내 물가의 방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생산재(원재료와 중간재)물가 상승률은 2월의 전년동월대비 19.3%에서 3월에 23.1%로 증가
- 특히 생산재 중 원재료 물가지수의 경우 국제 원유가 급등과 더불어, 곡물, 금속 등 국제 원자재가도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52.4%의 급등세를 나타냄
- 한편 현재 재화 부문의 종합적인 인플레이션 측정 지표인 최종재(자본재와 소비재)는 생산재 부문의 물가 급등의 영향이 점차 파급되면서, 2월 전년동월 대비 3.5%에서 3월에 4.8%로 상승세가 급격해지는 모습을 보임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 | | 2006 | 연간 | 2007 | | | | 2008 | | |
|-------|------------|-----------|-------|----------|----------|----------|----------|-------|-------|-------|
| | | | | 1/4 | 2/4 | 3/4 | 4/4 | 2월 | 3월 | |
| 경기 | 경제성장률 | 5.1 | 5.0 | 4.0(1.0) | 4.9(1.7) | 5.1(1.5) | 5.7(1.6) | - | - | |
| | 수요 | 소비재판매 | 4.1 | 5.3 | 5.7 | 4.2 | 7.1 | 4.5 | 3.0 | - |
| | | 설비투자추계 | 8.9 | 8.6 | 12.8 | 11.9 | 0.7 | 9.2 | -1.9 | - |
| | | 건설수주 | 9.0 | 19.3 | 26.3 | 26.3 | -5.6 | 29.5 | -6.2 | - |
| | | 수출 | 14.4 | 14.1 | 14.6 | 14.1 | 9.4 | 18.2 | 18.8 | 19.1 |
| | 공급 | 광공업생산 | 8.3 | 6.8 | 4.0 | 6.2 | 6.0 | 11.0 | 10.1 | - |
| | | 취업지수 (만명) | 2,315 | 2,343 | 2,284 | 2,370 | 2,361 | 2,358 | 2,288 | 2,331 |
| | | 실업률 (%) | 3.5 | 3.2 | 3.6 | 3.2 | 3.1 | 3.0 | 3.5 | 3.4 |
| | | 수입 | 18.4 | 15.3 | 13.4 | 14.7 | 7.3 | 25.9 | 27.6 | 25.9 |
| 대외 거래 | 경상수지 (억\$) | 54 | 60 | -17 | 0.3 | 44 | 32 | -24 | - | |
| | 무역수지 (억\$) | 161 | 146 | 24 | 50 | 45 | 27 | -12 | -7 | |
| 물가 | 소비자물가 | 2.2 | 2.5 | 2.1 | 2.4 | 2.3 | 3.3 | 3.6 | 3.9 | |
| | 생산자물가 | 2.3 | 2.7 | 1.8 | 2.5 | 2.0 | 4.3 | 6.8 | 8.0 | |
| | 생산재물가 | 4.8 | 4.7 | 2.1 | 3.3 | 2.5 | 11.1 | 19.3 | 23.1 | |
| | 최종재물가 | 0.5 | 1.1 | 0.3 | 1.1 | 0.6 | 2.5 | 3.5 | 4.8 | |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국고채 금리 연중 최저치로 복귀

○ (해외 금융 시장) 미 국채금리 급등

- 금리: 신용 경색 우려가 다소 완화된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전주말 대비 소폭 상승 (국채 10년물 : 3.71→ 3.73%)
- 환율: 달러화는 미국 경기침체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되면서 유로화와 엔화에 대해서 소폭 약세 시현 (\$/€ :1.5817→1.5888, ¥/\$:103.67→103.38)

○ (국내 금융 시장) 국채 금리 급락

- 주가: 주 초반 상승세로 출발하였으나 미국 기업의 실적 악화에 따른 글로벌 증시의 불안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가, 국내기업 실적 호조 기대감 등으로 다시 상승세로 반전하여 전주말 대비 상승 (1,771.9→ 1,799.3)
- 금리: 2/4분기 이후 경기 둔화 전망 및 기획재정부나 세계잉여금 중 최대 5조 원의 바이백 시사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전주말 대비 하락 (국고채 3년 수익률, 4.98→ 4.92%)
- 환율: 국제유가의 사상 최고치 경신에 따른 정유사 등의 결제 수요 등에도 불구하고, 신용위기 진정 기대감 확산 및 외국인 주식투자자의 주식 순매수 전환 등의 영향으로 전주말 대비 소폭 하락 (1,000.9→ 996.5)

○ (전망) 환율 급등에 따른 소폭 하락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 | | 2006 | 2007 | | | | 2008 | | |
|----|------------|---------|---------|---------|---------|---------|---------|---------|--------------------|
| | | 4/4 | 1/4 | 2/4 | 3/4 | 4/4 | 1/4 | 4.18 | 4.24 ¹⁾ |
| 국내 | 거래소 주가 | 1,434.5 | 1,452.5 | 1,743.6 | 1,946.5 | 1,897.1 | 1,703.9 | 1,771.9 | 1,799.3 |
| | 국고채3년(%) | 4.92 | 4.76 | 5.26 | 5.46 | 5.74 | 5.10 | 4.98 | 4.92 |
| | 원/달러 | 929.8 | 940.9 | 923.8 | 915.1 | 936.1 | 990.4 | 1,000.9 | 996.5 |
| 해외 | DOW | 12,463 | 12,354 | 13,409 | 13,896 | 13,265 | 12,263 | 12,849 | 12,620 |
| | Nikkei | 17,226 | 17,288 | 18,138 | 16,786 | 15,308 | 12,526 | 13,476 | 13,398 |
| | 미국채10년(%) | 4.70 | 4.57 | 5.02 | 4.59 | 4.02 | 3.41 | 3.71 | 3.73 |
| | 일본채10년(%) | 1.69 | 1.60 | 1.88 | 1.69 | 1.51 | 1.29 | 1.38 | 1.46 |
| | 달러/유로 | 1.3199 | 1.3354 | 1.3542 | 1.4267 | 1.4593 | 1.5788 | 1.5817 | 1.5888 |
| | 엔/달러 | 119.07 | 117.83 | 123.18 | 114.80 | 111.65 | 99.70 | 103.67 | 103.38 |
| | 두바이(\$/배럴) | 56.71 | 63.12 | 66.42 | 76.64 | 89.06 | 97.66 | 105.83 | 109.26 |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4.23) 기준